

네트워크시대 국가도서관의 협력과 미래 정책방향성에 관한 연구

- 국회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Collaboration of National Library and Policy Orientation in Network Era -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

박 미 향(Mihyang Park)*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4. 도서관의 공간자원 |
| II. 개념정의 및 협력사례 | IV. 국가도서관 협력의 정책방향성 |
| 1. 개념정의 | 1. 공공의제와 가치의 개발과 공유 |
| 2. 도서관협력의 배경과 사례 | 2. 특화된 전문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식네트워킹 강화 |
| III. 국회도서관 협력의 현재, 협력의 자원들 | 3. 범국제적 도서관활동을 통한 해외 리더십 확보 |
| 1. 도서관 장서 | V. 마치며 |
| 2. 국가서지와 전자도서관원문DB | |
| 3. 조직의 인적자원 | |

초 록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의 현재 자원들을 정보적, 인적, 공간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협력사업의 정책적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 사례, 국가도서관관련 법령과 국가정책, 관종별 도서관협력과 국회도서관의 자원별 대외협력사업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도서관 협력사업의 미래방향으로 가치개발, 특화콘텐츠확보, 해외네트워크 리더십확보 등 세 가지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도서관정책, 도서관협력, 대외협력, 도서관네트워크, 국가도서관, 국회도서관, 지식네트워킹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orientations of national library collabo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ree types of resource such as information, human, and space.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the analyses of foreign cases, the related laws and national policy, case review of various cooperation by library types and resources. In the end, the three policy orientations are proposed for development of national library: sharing public values, securing specialized contents, and having leadership in the global network.

Keywords: Library policy, Library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library network, National library, National Assembly Library, Knowledge networking

* 국회도서관 전자정보개발과장,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npoya@nanet.go.kr)
• 논문접수: 2013년 12월 2일 • 최초심사: 2013년 12월 2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21일

I. 들어가며

2000년 이후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지식사회로의 급진전과 네트워크의 강조이다. 피터 드러커는 지식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지식근로자 집단이 지속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획득하고 이를 서비스로 전환하여 조직과 개인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사회의 선도계층으로 떠오를 것이라 주장하였다.¹⁾ 즉 이 지식사회에서의 가치생산은 기존의 물리적 기계나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지식근로자들의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는 다양한 지식정보와 경험공유 속에 보다 강력하게 확산되고, 네트워크사회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정보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정보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역사의 아주 오래전부터 도서관인들은 인류문화의 기록을 관리하고 지식자원을 보존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정보의 수집, 가공, 서비스를 위해 직업적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더불어 관련된 지식정보의 생산과 제공, 활용에 있어 정신의 자유, 평등한 이용, 다양성, 공유자원 지배에 관한 정책 및 관행의 민주적 결정 등에서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²⁾ 이에 따라 정보법람의 시대에 단순한 경쟁을 넘어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공감(empathy)을 기반으로 상생적 관계를 재편해 나가는 네트워크, 즉 협력에 대한 논의는 도서관이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보 문화기관의 미래성장을 이야기할 때 필수적으로 떠오르는 가치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 흐름은 일정한 패턴들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수많은 네트워크 속에 도서관은 지속가능한 지식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를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협력논의는 공유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틀을 넘어서 정보 생산자, 정보이용자, 그리고 정보서비스기관과 관련기관을 보다 폭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창조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입법부소속 국회도서관 다양한 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그간의 국가도서관 대외협력활동을 검토하면서 네트워크시대 국가도서관 협력의 발전과정과 정책방향성을 논하고자 한다.

1) Peter F. Drucker, *대변화시대의 경영*, 이재규 역(서울 : 청림출판, 2013), pp.118-120.

2) Charlotte Hess and Elinor Ostrom, *지식의 공유,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나누다*, 김민주, 송희령 역(서울 : 타임북스, 2010), p.182.

II. 개념정의 및 협력사례

1. 개념정의

국내 도서관법에서 국가도서관에 대한 정의는 법적인 측면에서 분명하지 않아 관련 개념의 법적 규정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의적 측면으로 국가도서관을 살펴보면 이는 설립과 운영주체가 국가인 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은 일반적으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을 통칭해 일컫는 용어라 할 수 있다. UNESCO정의를 따르면 국가도서관은 보다 넓은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직, 간접적으로 국가 재원으로 지원받으며, 자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자국과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수집, 기록하고, 이용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³⁾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이용자 정보요구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도서관정책 없이는 도서관의 발전과 국민의 질 높은 정보문화향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⁴⁾ 이에 그동안 한국의 도서관은 정책당국과 정치인, 도서관계와 학계 그리고 도서관 관련 업계 등의 노력과 연대 속에 꾸준히 발전해 왔다. 국가도서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장서의 공동보존⁵⁾ 등 주요정책 현안대응을 위해 국가도서관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논의⁶⁾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국가차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적 역할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⁷⁾ 더불어 기능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협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협력체제를 정비하여 새로운 통합도서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⁸⁾도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논의될 국가도서관에서의 협력(cooperation)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것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협업(collaboration)은 어떠한 것을 생산하거나 창안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행위이고, 파트너십(partnership)은 두 사람 이상이 파트너로서 활동하는 연합체를 의미한다.⁹⁾ 관련하여 도서관 협력 체계를 '비용 절감이나 효과성 증진 등을 위해 자원이나 부서 등을 공유하여 주어진 기능과 이용자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도서관간 또는 유사기관의 연합' 기구나 단체로 정의하기도 한다.¹⁰⁾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하여 library consortium,

3) Lor, Peter Johan,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UNESCO, 1997.

<http://www.unesco.org/webworld/nominations/guidelines1_h.htm> [cited 2013. 11. 19].

4) 이만수, "정보사회에서의 국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1호(2001), pp.201-221.

5) 강현민,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pp.29-53.

6) 윤희윤, "주요 국가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 주요 국가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pp.69-96.

7) 윤희윤,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pp.215-240.

8) 한성택, "국가 통합 도서관 협력 체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 pp.19-49.

9) 조윤희,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2호(2008), p.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4호)

library network와 혼용하여 쓰기도 하는 도서관협력은 두 개 이상의 도서관이나 유사 정보서비스 기관의 운영이나 자원의 이용 또는 이용자를 위한 정보봉사를 촉진, 증진,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도서관간 상호 보완적, 호혜적 협력활동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도서관협력은 도서관간 분담수서, 종합목록작성, 상호대차, 서지정보교환 등 도서관 자원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으로 도서관과 이용자의 이익과 만족감을 증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이 같은 도서관협력의 기초는 양 기관이 서비스 수혜자를 위해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양질의 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 확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도서관 대외협력과 정책의 방향성을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의 창의적 연대를 통해 시민의 정보복지에 기여하며 사회 속에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의 보다 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2. 도서관 협력의 배경과 사례

가. 국가도서관 협력의 배경과 필요성

1980년대 이후 정보기술발전과 기술도입에 따라 정보생산과 유통 및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도서관분야 협력내용이 보다 풍성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각 도서관의 상호협력은 1990년대 이후 상호대차와 원문복사서비스 분야가 정보기술에 적극 활용됨에 따라 강화되어졌다. 더불어 9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의 개념이 정책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관련하여 공공의 지식정보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IMF경제위기 타개의 한 방법으로 국가정보화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으로 수립된 정보자원을 기반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전개시켰다. 국가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 간 지식정보 분야를 분담하여 DB구축을 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은 대규모 디지털자료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이 국가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매년 전자도서관구축사업을 기획, 시행하고, 이를 통해 보유한 국회전자도서관 디지털 원문자료를 학술정보협력망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공공정보 공개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협업과 협력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정보행위가 스마트폰의 혁명적 보급 속에 일상화(ELIS)¹¹⁾,

10) 이상복, 이용훈, 박승진,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2008), p.11.

11) 2000년 이후 사람들의 일상의 정보추구 행태 (ELIS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는 이용자 연구의 주요 분야이고, 스마트폰의 전 국민적 사용, 빅데이터 분석기술 확대로 해당 이용행태연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 대표적 연구저서는 다음과 같다. Donald O. Case,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London: Emerald, 2002); William Aspray and Barbara M. Hayers, *Everyday Information: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Seeking in America*(New York: MIT Press, 2011).

보편화되면서 시민들의 정보기대와 요구도 확대해져 가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행태와 요구분석을 의미형성(sense making)에 근거한 질적 분석을 통해¹²⁾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도서관간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모색되고 협력파트너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는 저작권이 북미지역 중심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강화 방향으로 강력하게 입법화됨에 따라 자유로운 정보공개 및 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황속에서 공공 차원으로 정보서비스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정보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도서관협력관련 의제 중 유의할 만한 사항은 미술관, 박물관, 기록관 등 이른바 문화유산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킹에 대한 논의이다.¹³⁾ 관련하여 도서관이 제도적 원형으로 삼는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원래 뮤즈에게 봉헌된 사원이었고, 기록과 도서보관 이외에 예술을 주관하는 뮤즈의 공간이자 문화의 장소¹⁴⁾이었다고 한다. 더불어 뮤지엄(museum)이라는 명칭도 '뮤즈'에서 유래된 것이어서, 도서관과 미술관 등 대중을 위한 문화기관은 애초부터 사회적 역할에 있어 그 관련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100세 이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은 생활, 놀이, 연구, 교육, 문화가 융합된 시민의 보다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의 역할과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해주고 있다.¹⁵⁾

2013년 현재적 의미로서 도서관협력과 관련된 주요 환경변화는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3.0'이라는 슬로건아래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시켜 보다 열린 정부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의지와 공공과 민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민서비스를 창출하려는 공공 정보화 계획들이다.¹⁶⁾ 향후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는 관중에 따라 상이한 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정보 개방과 실질적 공유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가도서관의 협력

기관마다 법적 위상¹⁷⁾과 역할이 상이하지만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입법,

12) Karen E. Fisher, Sanda Erdelez, Mekechnie E.F. Lynne, *Theories of Information Behavior*(New York : ASIST, 2005).

13) 임진희, "국회의 통합 라키비움을 기대하며," 국회도서관보, 제49권, 제8호(2012), pp.18-21.; 최영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박사학위논문, 명지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12), pp.12-190.; 조윤희, 전개논문, pp.5-21.; 최재희,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권, 제2호(2008), pp.61-74.

14) Stuart A.P. Murray, *도서관의 역사: 문명의 기록과 인간의 역사, 운영에 역*(서울 : 예경, 2012), p.35.

15) Pauline Rothstein and Diantha Dow Schull, *Boomers and Beyond*(New York : ALA, 2010), pp.63-70.

16)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디지털 창조사회 실현, 국가정보화 미래전략 세미나, 2013.8.22.

17)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법률 제9704호/ 국회도서관 기획담당관실)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 제3장에 근거해 운영되고

사법, 행정 3부를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협력을 논의할 때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기관이다. 현재 국가도서관사업 등 주요 안건별 실무책임자 회의나 워크숍과 기관장 정기 모임을 통해 기관의 주요사업과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도서관간 협력시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은 기관별 특성과 조직적 강점에 기반한 특화된 정보자원의 보유, 기능적 권한에 근거한 차별화된 업무노하우와 기관 네트워크의 강점들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의 내용을 개발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도서관 및 공공기관 정보서비스기관 간 정보자원을 기반으로 한 협력업무는 199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전자도서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요도서관을 연계하여 국가자원의 공동 이용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간 DB의 중복구축 방지 및 분담구축, 디지털화자료의 표준화를 통해 디지털정보의 통합검색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위해 구상되었다. 해당 협력사업의 참여기관으로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등 국립도서관을 포함하여 국가기록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국방부 국방전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총 10개 기관이 국가전자도서관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통합뷰어개발, 로그인정책 및 인터페이스개선 등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기관의 장점을 기반으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해외 주요국의 국가도서관 협력사례의 최근 경향은 국가적 차원의 문화유산 보존기능의 확대나 이용자의 정보이용과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도서관정보자원과는 다른 유형의 정보를 보유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1997년 미국 의회도서관과 Ameritech 디지털도서관은 American Memory Project라는 사업을 중심으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유산기관이 보유한 특정 장서컬렉션을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1999년부터 3년 동안 Ameritech는 다른 박물관과 도서관들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American Memory에 대한 디지털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컬렉션들은 박물관 소장품을 포함하여 문화유산 정보를 확대시키는 미의회도서관 서비스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 이들 자원은 미의회도서관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협력기관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¹⁸⁾ 현재 7백만 건 이상의 디지털 컬렉션은 단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디지털자원이라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다.

유럽에서 진행되는 보다 개방적 협력사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온라인으로 문화유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로피아나(Europeana) 디지털도서

있으며, 법원도서관은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 법원행정처 기획 제2담당관) 제4장에 근거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18)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Memory Project homepage, <<http://memory.loc.gov/ammem/award/collections.html>> [cited 2013, 10, 30].

관프로젝트이다. 2008년 11월 “Think culture”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이래 영국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루브르박물관 등 유럽 27개국의 180여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에서 제공한 문화유산 콘텐츠와 저작권 해결 및 보호기간이 만료된 원문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10월말 현재 약 2천 9백만 건에 달하는 페이지뷰를 달성하며¹⁹⁾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 세계 SNS 이용자의 일상 정보활동속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로피아나 서비스는 모바일과 PC 이용자로 그분석을 통해 이용자 정보이용패턴을 파악해 서비스 및 콘텐츠와 인프라강화에 반영하고 있으며, 공역자료(Public domain)와 저작물사전이용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자료들의 통합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²⁰⁾

다. 관종별 또는 범관종 협력사례

국가도서관을 포함하여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은 다양한 차원의 관종별 또는 관종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도서관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동기는 공동목록작성 및 활용, 상호대차, 참여기관들의 권익보호 및 관련 법개정에 대한 공동대처, 선진 사례분석과 발표를 통한 상호의견 교류와 공동논의의 장 필요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계의 대표적 협력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주요 도서관협력협의체와 협력내용²¹⁾

명칭	한국사립대학 도서관협의회	한국국립대학도서관 협의회	공공도서관 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 협의회	한국의학 도서관협의회	전국법학 도서관협의회	한국학술 정보협의회
연도	1972	1962	2007	2009	2002	2008	2002
내용	1) 분담수서 2) 분담편목 3) 상호대차 4) 공동수서 5) 서지정보 제공 및 교환	1) 도서관 관련 이슈 공동 대처 2) 대학도서관 정책 기반 조성 3) 간행물 편찬	1) 도서관정보화 2) 분담수서 3) 상호대차 4) 문화프로그램 및 공동홍보 5) 외국도서관 과 교류	1) 상호대차 2) 지식정보공유 3) 교육 및 연구활동 5)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1) 상호대차와 복본 교환 2) 학술대회 및 워크샵 개최 3) 의학사서 자격인증센터 4) 협회지 발간	1) 법학서비스 관련 세미나 2) 법률정보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3) 편람 등 자료발간	1) 학술정보의 공동활용 2) 학술정보 유통망구축 3) 전자도서관 공동활용 4)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5) 총회 및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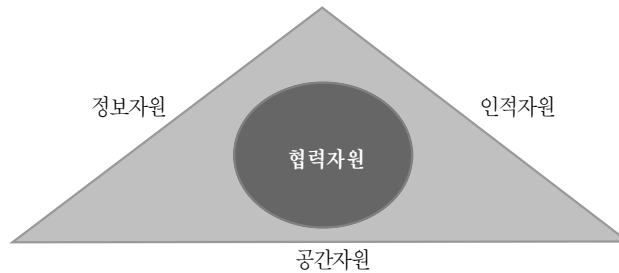
19) Europeana homepage <<http://www.europeana.eu/>> [cited 2013. 11. 15].
 20) Marco Marsella, “Europeana, Innovation, and Cultural Content Online: where do we stan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EuropeanaTech Conference, EuropeanaConnect*, 2011. <<http://www.europeanaconnect.eu/europeanatech/index.php?section=programme&page=programme>> [cited 2013. 11. 10].
 21) 도서관 관종별 대표 협의회 선정 후 각 협의회의 해당 홈페이지분석을 통해 최신사항을 보강하였다.

이 중 한국전문도서관협회는 과학기술정보관리협회와 지식정보공유협회를 통합하여 2009년 창립되었고, 한국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는 대학도서관협의회 연합단체로서 2007년 대학도서관연합회를 구성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등 관련 법개정과 도서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활동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대표적 협력망으로는 2002년 전자도서관DB구축사업의 중복방지와 전자도서관사업의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한국학술정보협의회(KSIA)가 있다. 2013년 현재 1,500여개 기관과 국회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공유하며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는 해당 협의회는 매년 초 이사회 의결기관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 일정, 협의회 운영 및 세미나주제를 정한다. 이에 따라 매년 총회에서 그 해 도서관정보 분야의 현안 사항에 대한 주제세미나와 분과발표를 통해 전자도서관협력사업의 아이디어공유와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Ⅲ. 국회도서관 협력의 현재, 협력의 자원들

국가도서관 협력사업은 도서관의 기본자산인 자료, 직원, 공간 등에 대한 창의적 조합과 활용에 대한 기관의 의지와 네트워크사업의 역량이 축적될 때 타 기관과의 협력에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세 가지 차원의 도서관 주요자원들은 삼각구도를 이루며 도서관 협력사업을 지원 또는 강화하게 된다.



<그림 1> 국가도서관 협력사업의 기본요소

위 그림에서 정보자원은 장서, 국가서지, 전자자원과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구성되며, 도서관협력사업은 이와 같은 정보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며, 협력사업의 내용은 협력요소들의 창의적 융합속에 진행된다.

1. 도서관 장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의 협력은 가장 오래된 협력내용의 하나로서 특별히 국가도서관은 국

가적 차원에서 당대의 지식결과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는 국가장서개발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협력사업이다. 양질의 국가장서를 보유하기 위해 납본, 구입 등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지식정보자료를 국내외 협력관계를 활용해 기증, 교환, 기탁의 형식으로 획득함으로써,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기관 성격에 맞는 전문적 장서를 보유하는 것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이 같은 전통적 협력관계를 도서관 창립 초기시절부터 구축하였으며 2013년 현재 외국의 국가도서관과 의회,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주요 해외대학교 등 전 세계 90개국 330여 개 기관과 자료교환관계를 맺고²²⁾ 해당 기관의 주요 발간물을 수집하고 있다. 주요 수집대상자료는 해당 기관의 단행본, 논문과 정기간행물(기관발행 저널 및 잡지, 연간백서 등), 법령추록과 회의록, 소위 회색문헌(gray literature)이라고도 일컫는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와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부정기적 정기간행물, 정책 및 연구보고서 등이 있다.

또한 해마다 한국과 국내 연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선별된 한국학관련 자료와 학술저널과 정기간행물, 그리고 국회의원 입법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 생산한 자료 등을 협력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상호 자료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별히 미국 의회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 주요국의 국가도서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고, 국회도서관은 이 네트워크를 인적 교류 및 외부 환경 변화시 신규사업개발이나 조직 확장에 대한 자문과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활용하였다.

2. 국가서지와 전자도서관원문DB

국가도서관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는 국내학술자료에 대한 체계적 서지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을 강화시키는 일이다.²³⁾ 국가도서관의 국가대표서지는 지식재산을 위한 사회적 활용성 이외에 역사적 관점에서는 시대를 통시적으로 살펴 당대의 지적 활동과 관심사를 분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보원으로도 활용된다.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서지는 1964년 이후 발간된 정기간행물 기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한 서지정보인 ‘국회도서관 정기간행물기사색인’과 1945년 이후 발간된 논문이 종합적으로 수록된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이다. 국가지식 연구정보에 대한 이 망라적 서지자료들은 90년대 이후 디지털정보자원 생산을 위한 기반 정보기술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디지털 원문정보와 연결되었다. 정보접근성이 높아진 학술자료의 활용이 범국가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정보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현재 다양한 협력사업의 근간이 되어 온 국회도서관 디지털 원문자료는 1990년대 후반 IMF로

22) 국회도서관, 2012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서울 :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실, 2013), p.102.

23) 김용원, 도서관정보정책(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p.117.

인한 경제위기에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라 양산된 대규모 고학력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조성된 국가정보화 공공근로사업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성되었던 국가 데이터베이스사업을 통해 구축한 디지털원문정보자료들이 국가 연구력강화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현재의 순환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사업의 공공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다.

전자도서관 디지털자료를 기반으로 한 국가지식정보 네트워크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현재 국회도서관은 국내외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 등과 상호협정을 체결하여 약 1억 5천만면의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에 대한 전자도서관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전자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기관이용은 학술정보 상호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협정시 각 기관 생산자료 공유, 발간자료의 저작권 검토, 저작물 이용허락 및 DB 구축에 대한 협의를 한다.²⁴⁾ 이들 협정기관과의 협력망을 기반으로 구성된 한국학술정보협의회를 통해 매년 협력실적평가를 포함한 총회와 전자도서관계 현안사항을 반영한 세미나를 주관함으로써 도서관협력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관련 대외협력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해외 한국학연구와 유학생 및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의 재인식 등의 사회적 이유로, 한국의 연구자료에 대한 국제적 정보 요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북미권과 아시아권에서 2000년 이후 국회전자도서관 학술정보협력협정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해당지역에서 한국학 연구자 정보수요와 재외동포 및 한국 유학생수가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3. 조직의 인적자원

네트워크시대 도서관협력은 제도적, 기술적, 정보인프라적 측면 못지 않게 인적자원이 협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도서관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조직을 운영, 발전시키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의 하나로서 조직의 핵심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직원을 상호적으로 단기 또는 장기과견을 통해 자관의 주요활동을 홍보하고, 선진사례를 직접 배울 수 있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강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여 왔다.

인적자원 교류와 직원육성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대표적 협력파트너는 미국 의회도서관, 중국 상해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입법정보서비스 개발시 출장을 통한 자료조사나 직원의 단기 연수 또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조직간 신뢰관계를 구축한 협력기관이다. 실제 2011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신설시 미국 의회법률도서관의 정보서비스나 의회도서관내에서의 조직적 위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성장과 관련된 많은 시사점을 얻었으며, 미

24)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 업무매뉴얼(서울 :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 2013), p.19.

의회법률도서관 관장을 비롯한 주요책임자 등을 초청한 국제세미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입법부 주요인사와의 미팅²⁵⁾ 등을 통해 국회도서관 기능 확대에 측면 지원을 해 주었다.

중국 상해 도서관과의 인적교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실무직원들을 양 도서관에 동시 파견하여 기관간 주요 현안사안과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는 2003년 일본 측의 제안으로 시작되어²⁶⁾ 매년 양 기관에서 번갈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의회 지원 업무와 정보서비스개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선진도서관과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교류 협력 이외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또는 의회기관에서 국회도서관의 의회지원서비스와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등의 도서관경영사례를 배우기 위한 교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관련하여 몽골 국가도서관의 직원직무연수프로그램(2002)과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회지원기능을 강화하려고 기획된 미얀마 의회 직원들의 직무연수프로그램(2013) 등이 있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북미 주요대학도서관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한국학 관련 자료정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해 실무 직원의 장기파견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현재 북미지역 직원직무프로그램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경제위축으로 대학도서관의 예산도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허나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위상제고에 따라 해외 한국학 연구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여건은 개선될 것이라 예측된다.

향후 조직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협력사업은 전 세계 한국학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홍보와 제3세계 도서관설립지원 등을 통한 범국가적 정보복지 향상 및 국제적 정보 불균형 및 지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적 측면의 투자는 그 현실적 실행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4. 도서관의 공간자원

사회속의 도서관 역할을 장서(책), 사서(사람), 시설(건물)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삼각구도에서 설명한 미국 도서관학자 세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도서관이 갖는 장소적 의미는 사람과 자료가 모이고 사람사이의 지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도시적 관점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도시의 중심에 있었으며 도시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장소(place)는 그저 아름다운 공간(space)을 만드는 것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즐겨 찾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때 사회속에 의미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해

25)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우윤근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wyk239?Redirect=Log&logNo=100125471411>> [인용 2013. 11. 19].

26) 국회도서관, 2012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서울 :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실, 2013), p.108.

나간다.

2000년대 중반이후 카페공간에서 다양한 미팅이나 독서 또는 저술작업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 현상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이미 17세기 중반 유럽의 커피하우스는 지식인들이 사회이론과 문화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하거나 사교를 하는 공간으로 활성화되었다. 당시 커피하우스에서는 정기간행물이 가장 인기있는 읽을 거리였고, 특정 주제에 대한 간단한 논문형태의 신간도서가 테이블에서 회자되었다고 한다.²⁷⁾ 이처럼 독서, 연구, 자료조사, 미팅에 있어 매력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는 지적 작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뉴욕공공도서관(NYPL)의 공간 재개발계획²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서관은 이제 자료보존과 전통적 정보서비스 외에도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사교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이용자환경에 대한 배려와 장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공공도서관에 이어 국가도서관들도 보다 개방적인 공간으로 이용자들을 환대하기 시작했다. 즉 도서관 공간을 기반으로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외에도, 창의적 협력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나 사람간의 지적 미팅 등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는 자율성을 가지고 주체로서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러한 개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관심을 회복하는 것으로²⁹⁾ 이를 통해 도서관은 성찰하는 개인들의 의사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활성화시킨 도서관은 전통적 차원의 정보행위 외에도 전시 및 문화, 파티 및 사회적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사람간의 정보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 맞춰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 정책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문화행사나 정책이슈에 대한 국민캠페인을 공동 기획하고 이에 도서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기관의 대내외적 홍보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시키고 있다.³⁰⁾ 관련된 대표 사례로는 국회도서관 소장 미술자원과 외부작가 작품을 접목하여 기획한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전(국회의원과 국회도서관, 2011), 해외소재 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미국작가 작품전과 작품경매이벤트(미술관과 도서관, 2007) 등이 있다. 특히 한국대표사진작가전은 서울 G20국회의장회의 대표 문화행사로 기획되어 회의 마지막 날 만찬장으로 전시회가 열린던 국회도서관 1층 로텐다홀이 활용되면서,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외빈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³¹⁾

27) Stuart A.P. Murray, 전게서, p.120.

28) Robin Pogrebin, "New York Public Library Shifts Plan for 5th Ave. Building," *The New York Times*, Sep.19, 2012.

29) 김세훈, 문화정책연구를 통해 본 국가와 공공 영역 발전의 관계—도서관 정책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03), pp.155-158.

30) 조운선, 문화가 답이다(서울: 시공사, 2011), pp.46-47. 저술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었던 저자는 주요문화계의 복원과정조차 관광상품을 넘어 행위예술로 변모시키는 외국사례를 소개하고,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의 기획전시를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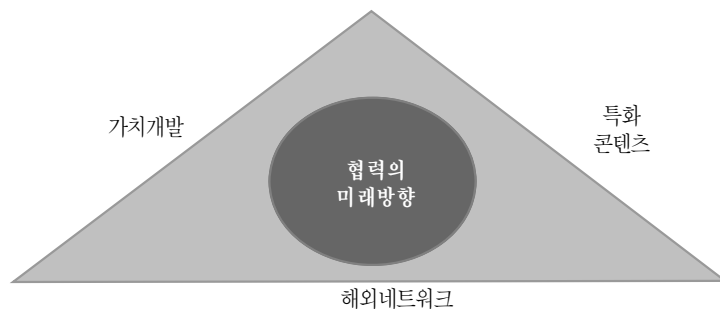
31) 조정진, 서울G20국회의장회의기념 사진전 12일 개막, 세계일보, 2011. 5. 20.

이와 같은 문화행사들은 국회도서관입장에서는 도서관이라는 고정적 이미지를 넘어서 문화국회로서의 입법부 이미지제고와 입법부 최고정책결정권자들의 국회도서관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국회의원 의정 및 입법활동과 관련된 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가능성과 국가적 차원에서 미술품 등의 기증 또는 구입을 유도하여 도서관의 문화자본적 가치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추후 이러한 미술품 전시기획과 관리 등 문화 활동은 국회의원의 단행본 저서를 통해서도 소개됨에 따라,³²⁾ 국회도서관을 다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홍보하며 문화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IV. 국가도서관 협력의 정책방향성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사회는 지식형성과 사회운영의 많은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요소들이 공유와 소통을 통해 발전되는 사회이다. 더불어 이후 다가올 세상은 공동창조사회로서 유기성이 극대화되어 서로 협력하며 사는 세상이다.³³⁾ 정보사회가 정보가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하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미래 사회는 정보기술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 사회를 보다 건강한 관점으로 지향해 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회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해 이를 국가적 정보자산으로 쌓아나가고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기존의 자산을 개발하여 체계적 정보연계 속에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데이터의 생산과 건강한 유통문화를 정착시켜가는 과정 속에 진화하며, 이는 도서관을 포함해 정보생산, 유통 및 서비스기관의 의미있는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전해 간다. 이 협력사업의 가능성은 개인과 참여기관



<그림 2> 국가도서관 협력사업의 미래방향

32) 김정, 디자인정책고(서울 : 흥디자인, 2011), pp.117-119.

33) 조중혁, 인터넷 진화와 뇌의 종말: 디지털의 미래, 디스토피아인가 유토피아인가 (서울 : 에이콘, 2013), p.320.

들이 협력을 통해 이루어내는 사회적 변화가 세상을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킨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국가도서관의 대외협력은 도서관을 넘어서는 통섭능력으로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몇 가지 주요한 협력사업의 방향성을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다. 국가도서관 협력사업의 성공적 미래방향의 주요 요소는 <그림 2>와 같은 삼각구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도서관의 자체업무와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서 유추된 공적가치의 연계성, 조직의 존재기반에 따른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국가지식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공적가치 개발과 콘텐츠정책을 기반으로 국가도서관의 위상을 확장할 수 있는 해외 네트워크의 강화가 그것이다.

1. 공공의제와 가치의 개발과 공유

도서관은 공공서비스적 측면에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에 최대한의 민주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심지가 될 것이란 전망은 이전부터 예측되었고,³⁴⁾ 이에 따르면 도서관은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이를 데 없는 정보과학기술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매체로 변모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적 공적 기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국가도서관은 사회적 요구 중 국가적으로 주요한 정책 의제로 선정된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국가장서 및 정보서비스정책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정보문화 복지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가치를 함께 하는 협력대상 기관의 확장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식적 계획과정, 공동의 정책 발굴 및 절차 채택 등과 공유가능한 사명과 목표발굴은 협력기관간 지속적으로 의미있게 사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할 수 있는 공공가치와 의제들 관련해 최근 새 정부의 국정과제³⁵⁾들을 살펴보면 시민의 평생교육, 시민복지, 다문화가족지원, 정부와 시민단체간 협력강화, 민간 정보공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각 분야 사회의제들이 도서관 정보정책 개발에 참조하여야 할 주요 공공정책적 이슈라 하겠다.

이에 따라 국가도서관 대외협력 방향성의 첫 번째 주요사항은 사회이슈에 관한 어젠다 공유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를 국가도서관의 정보자원을 활용한 국가사업과 연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관련한 최근 대외협력의 국회도서관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차원의 의회자료아카이빙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와의 협력이다. 이는 지방의회에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DB와 의회정보서비스를 자유롭게

34) Theodore Roszak, 정보의 승배, 정주현, 정연식 공역(서울 : 현대미학사, 1994), p.53.

3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서울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p.79, 117, 174, 209,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등 5가지 국정목표아래 총 140개 국정과제에서 50. 다문화가족적응 지원강화, 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11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구현 등이 국가도서관 주요사업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과 연계된다.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방의회 소장 및 생산 자료를 국회도서관에서 수집, 디지털화를 통해 공유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국가적 차원의 정책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방부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미래세대인 군장병들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던 포괄적 업무협력 등이 관련된 대표적 사업들이다.

특히 국방부와의 협력사업 개발시에는 군생활이라는 의무기간을 통해 발생하는 특이한 차원의 정보격차에 주목하였다. 군장병들은 최전방의 GOP소대에서 근무할 때 인터넷활용 및 정보에 대한 접근격차가 발생하는데,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된 소외계층 중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 북한출신주민, 수감자와 함께 군 장병을 거론하는 것은³⁶⁾ 정보소외의 이와 같은 맥락에서라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과 국방부와의 포괄적 업무협약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단일한 도서관에 국회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개통하는 기존의 협정과는 다른 차원의 협정으로서, 해당 정부부처(국방부)와 입법부(국회도서관)가 협력하여 군 장병의 정보소외 및 교육관련 이슈에 관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공동 방안을 마련하자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정보정책 협력사업이었다.³⁷⁾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군은 향후 전국 1,600여개의 각 군 예하 병영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 디지털 원문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회도서관은 현재 시민들의 자발적 정보공유를 통해 국가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단체와 함께 지식정보공유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개인 연구자료나 공적 영역의 정보를 기부받고, 국가기관은 해당 자료를 안전하게 가공하여 개인적 차원의 정보보존(self-archiving)을 지원하고 국가적 아카이빙사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지식생산력을 강화하고 지식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향후 국가도서관은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향상하고 디지털지식정보 격차해소를 통해 국가 전반적으로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지적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할 공공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특화된 전문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식네트워킹 강화

국가도서관 협력의 두 번째 방향성은 자관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전시켜 이를 기초로 미래 조직발전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분석하는 작업에서 시작한다. 이는 협력대상기관과 그들의 특화된 자산과 취약점을 정밀히 분석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독자적 노하우와 자원, 그리

36) 이정연,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2호(2011), pp.22-25.

37) 박미향, “입법의 현장: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상생협력을 기대하며,” 국회보, 2013년, 7월호, pp.76-77.

38) 김경산, “국회도서관과 비영리단체, 지식공유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독서신문, 2013. 11. 11.

고 조직적 역량이 협력사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때 국가적 차원의 지식네트워킹은 사회적 정당성을 갖고 협력사업은 보다 고도화된다. 관련하여 협력 대상기관의 확장 및 다양화를 기반으로 학술정보와 특화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정부부처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소나 정보센터 등의 정보자산을 검토하고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³⁹⁾ 또한 인문, 사회과학 영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술전문성을 가진 대규모 공공기관이나 출판업계와의 협력사업도 창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사례로서는 국회 외국법률 번역데이터의 질적 제고와 자원공유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간의 외국법령정보 교류에 대한 협력사업이다.⁴⁰⁾ 이는 입법부의 대표적 정보제공기관인 국회도서관이 의원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외국법률원문과 번역자료를 어떻게 기관의 전략적 정보자원으로 가공,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획되었다. 즉 외국법률자료의 핵심은 전문 법률용어에 대한 번역오류를 최소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번역감수에 대한 영역을 법원도서관과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법원전 지역의 판사들을 활용하여 해당 법률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DB의 원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등재이전에 번역결과물에 대한 전문가자문과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DB를 국회와 법원이 공동 활용한다. 이 특화된 법률정보자원은 2011년 입법부조직 개편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신설에 있어 핵심적 정보자원으로도 활용되었다. 법률정보와 관련된 협력네트워크사업은 법률서비스 관련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정기적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해 법률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연동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하겠다.

국가도서관의 국가서지 또한 기관간 협력사업을 구상할 때 핵심적 자원으로 활용된다. 관련하여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과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신규 국가정보서비스를 구상할 때 유용한 정보자원이 된다. 서지정보공유를 통한 이용자 정보탐색의 만족도증대라는 초기의 서지정보 활용 모형을 벗어나 국가학술연구력강화와 정보생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사업이 구상될 수 있다. 해당되는 국회도서관 대외협력의 사례로 2013년 한국연구재단과 진행되고 있는 학술정보 상호협력 업무협약사업이 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인용색인DB와 연구자연구업적정보 그리고 국회도서관의 한국박사및석사학위논문총목록 DB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회전자도서관은 학술전문정보자원을 보강하여 해당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도구로 국회도서관 서지정보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사업이다. 이는 국회도서관 원문DB구축사업의 예산 효율화방안⁴¹⁾ 모색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대외

39)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회도서관 정보공유정책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 국회도서관, 2013), pp. 156-157.

40)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60년사(서울 :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실, 2012), pp.169-171.

41) 국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국회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서울 : 대한민국국회, 2013), pp.118-121.

적 네트워크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물에 대한 검증을 통해 건강한 학술생산문화를 조성하지는 것은 최근 학계와 교육계의 화두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된 협력사업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매년 정부 요직의 인사청문회시 주된 이슈 중 하나가 후보대상자의 논문표절과 연관된 사안인데 관련하여 해당 부처와 학술정보 원문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서관의 연대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저작권위원회와 협정을 맺어 논문유사도검증시스템을 공유하고, 공직후보자의 논문표절을 검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학술생산과정에 있어 표절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학문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도입을 준비하고 있다.⁴²⁾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 협력의 화두는 각 기관의 고유한 디지털자원을 보다 유기적으로 기관 간 공유, 연계하여 확장하는 협력사업이다. 국가학술정보 및 유통기관이 오픈 액세스를 기관별 주요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문정보연계서비스는 향후 정보서비스 보급방식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적 사업으로 구축된 학술 DB,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정보 연구성과물 등은 현재 보다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상호 연결된 원문이 인터넷 환경에서 공동 활용될 수 있다. 이 네트워크 환경의 전자도서관 정보자원활용의 핵심사항은 기관별로 저작권이 해결된 공공저작물과 특성화 전자파일의 다량 확보이다. 더불어 개방적 로그인정책으로 이용자의 정보편의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도 사업성공의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 지점에 있어 기관별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 국가정보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저작권이슈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이를 위한 상호협의를 구성할 수 있다.

특화된 기관간 핵심자원을 기반으로 개발한 초협력적 사업은 생산적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기관 간 상생적 공동사업은 대내외적 사업홍보와 도서관의 사회적 위상강화라는 효과도 가져오게 한다. 무엇보다 협력은 상호적임을 명시하고 상대기관으로부터 유용한 콘텐츠를 확보함과 함께 상대기관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 사업내용으로 유지되어야 기관 간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3. 범국제적 도서관활동을 통한 해외 리더십 확보

세상은 이미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가치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합의한 이슈와 공동가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국제적 연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향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도서관 관련 국제적 주요이슈에

42) 이상민의원실,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국회의원 이상민과 국회도서관 공동주최세미나, 2013.11.18. 참고로, 총 16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논문표절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이 2013년 9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2013년 11월 20일 현재).

대한 공동참여와 활동은 국제도서관정보활동영역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도서관이자, 입법부의 정보서비스기관이라는 조직위상에 근거하여 초기부터 국제적 협력망 구축 및 확장에 노력하였다. 때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해외네트워크는 장서개발과 직원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이외에도 조직의 성장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 인적자원 활용에서도 설명했듯이 미 의회도서관은 법률도서관 설립과 운영관련 자문과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국회도서관내 법률정보실 신설에 국제적 차원의 측면지원을 해주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은 국회도서관이 IFLA 법률도서관분과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⁴³⁾

각 나라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및 연합체가 국가간 의사소통과 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인 대표적 국제협회로 1927년에 설립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을 들 수 있다. 이 협회의 초기 기본 과제는 도서목록작성 기준, 도서관간 자료협력, 도서검열에 대한 공동대처, 그리고 도서관발전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다. 현재 IFLA는 국제적 이해관련 문제에서 사서들을 대표하는 협의기구 수립, 도서관직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장려, 도서관 서비스지침개발, 유지관리, 홍보 등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⁴⁴⁾

초기 한국 도서관계의 국제도서관 단체활동은 정기적으로 연례행사에 참석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후 2006년 IFLA총회의 서울개최와 최근 아프리카 회원국 등의 약진, 그리고 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부상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 도서관계의 보다 적극적 참여와 리더십 기대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도서관계에서 보다 실질적 참여와 구체적 협력내용을 고민할 영역이 늘어났고, 국제도서관 정보네트워크 확대강화를 위해 국내 국가도서관들의 전략적 협력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회의 중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채택된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회의의 의제발굴과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가도서관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⁴⁵⁾

더불어 네트워크화가 진전된 정보사회에서는 인류의 사회적 기억에 대한 보존기관(Memory organization) 또는 문화유산기관(Cultural heritage institution)간 소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문화유산기관은 협력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용이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풍부한 문화정보로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⁴⁶⁾ 이에 ICA, ICOM, ICOMOS, IFLA

43) IFLA Law Libraries Section homepage, <<http://www.ifla.org/law-libraries/standing-committee>> [cited 2013. 1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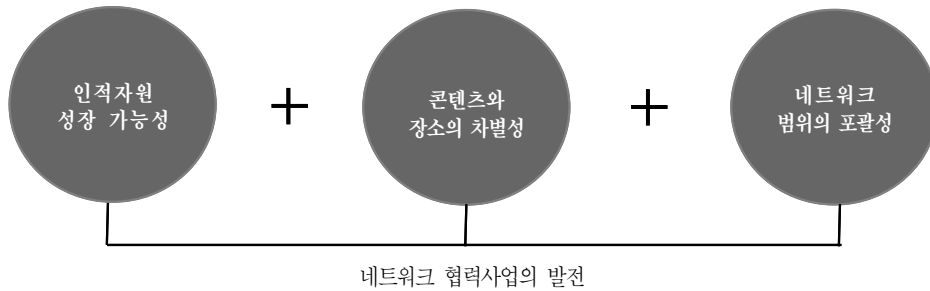
44) IFLA main homepage, <<http://www.ifla.org/strategic-plan>> [cited 2013. 11. 18].

45) 김은광, IFLA 특별관심그룹회의주최, 내일신문, 2013. 8. 20.

46) 조윤희, 전개논문. p.8.

등 세계적 문화예술기록 관련협회들이 문화적십자라고 일컫는 ICBS(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Blue Shied)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문화유산과 지적 유산보존과 서비스에 대한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에서는 특히 기관 간 경계를 넘어서 관련된 다양한 기관간의 다채로운 연계협력사업이 가능하다. 국제적 차원의 도서관협력사업 발구를 통한 국제도서관계 리더십 확보는 국내 도서관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도서관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시대 도서관협력사업이 도서관과 타 기관을 이어줄 수 있는 공적 가치개발, 조직 장점에 근거한 특화 콘텐츠 개발, 그리고 국가도서관 위상을 확장할 수 있는 해외네트워크 강화라는 세 가지 미래방향으로 나아갈 때 다음 <그림 3>에서처럼 국가도서관의 협력사업을 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유추되어질 수 있다.



<그림 3> 국가도서관 협력사업을 특별하게 만드는 3대 요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트워크시대 국가도서관의 대외협력사업은 도서관의 기본 자원인 전문직원의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의 성장가능성, 지식정보자원과 장소에 대한 차별성과 유일성 보유, 국가도서관으로서 공적 가치실현을 위해 관중 또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협력범위의 포괄성 등을 보유한다면 사회전반에 강한 파급력을 주며 도서관전반의 위상과 물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네트워크 협력사업은 사회적 또는 외부적으로 규정된 도서관의 업무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보다 매력적으로 사회속에서 재디자인하여 발전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마치며

세상은 빠른 속도로 조직들과 조직내 개인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여러 다른 조직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네트워크사회로 진화한다. 이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도서관은 인류 기록지식을 사회적 기억으로 조직하여 제공하는 사회기관으로서 전통적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사회적 기억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수집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었을 때 사회적 유산으로서 개인의 학습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역사적 의무는 한 나라의 국가도서관의 대표적 업무로 규정되고, 이는 지식과 정보생산의 의미있는 네트워크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완성된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도서관은 네트워크관계를 갖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때 타 기관과의 협력은 각자의 콘텐츠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콘텐츠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자원의 다양성과 규모는 정보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요소이며, 이에 따라 협력하는 미래는 도서관이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회적 기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인도의 도서관학자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에 따르면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로의 지향성을 지닌다.⁴⁷⁾ 이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고유기능을 끊임없이 재해석해나가며 도서관이 변모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 변화에는 현 사회의 공공가치적 정책의제와 구체적 정보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또한 다른 영역과 협력적 모험을 도모할 때,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배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협력을 위한 규칙 등은 보다 융통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관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보다 폭넓은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창의적 협력속에 공공의 요구에 기반한 다채로운 자료와 정보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수집 또는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지식정보공유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도서관의 합리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각 도서관의 전자도서관서비스는 정보서비스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는 도서관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서관을 넘어서는(beyond library) 협력방식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더불어 개방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디지털환경에서 많은 국가지식유산이 저작권의 제도적 제한으로 효율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보이용 및 지식생산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문제를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해결할 사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연합하여 해결해야 할 공적 이슈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가치와 가능성을 정책적 또는 정치적 차원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행정관료와 정치인 등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와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십도 반드시 필요하게 한다. 이들은 도서관에 대한 실질적 입법과 정책 결정 및 운영에 있어 직간

47) Shiyali Ramamrita Ranganathan,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2nd ed.(Bombay : Asia publishing house, 1957), p.316.

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서관이 각종 기획과 협력사업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서관 영역 외에서 도서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설득하고 네트워킹할지를 도서관계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급격한 사회변동속에 성공적인 변화와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도서관을 역사적으로 너무 오래되어서 변화하기 어려운 경직된 조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보다 큰 사명을 사회 속에서 설득해야만 바람직한 모습과 방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 협력과 소통을 통해 조직은 일상적 업무와 기존의 프레임을 넘어 새로운 시야로 공공 가치를 공유하는 기관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논의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합의한 공통 영역은 도서관의 위상과 함께 이용자 정보복지의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정책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국가도서관의 주요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개발은 시민의 품위있는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공공재로서 도서관의 사회적 위상과 가능성을 보다 풍부하고 넓게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회 속에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장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민,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pp.29-53.
- 국회도서관. 2012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서울 : 국회도서관, 2013.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60년사. 서울 : 국회도서관, 2012.
- 국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국회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 : 대한민국국회, 2013.
- 김세훈. 문화정책연구를 통해 본 국가와 공공 영역 발전의 관계—도서관 정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03.
- 김용원. 도서관정보정책.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 김은광. “IFLA 특별관심그룹회의주최.” 내일신문, 2013. 8. 20.
- 김 정. 디자인정책고. 서울 : 흥디자인, 2011.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디지털 창조사회 실현, 국가정보화 미래전략 세미나, 2013. 8. 22.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우윤근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wyk239?Redirect=Log&logNo=100125471411>> [인용 2013. 11. 19].
- 박미향. “입법의 현장: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상생협력을 기대하며.” 국회보, 2013년, 7월호, pp.76-77.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회도서관 정보공유정책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국회도서관, 2013.
- 윤희윤,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pp.215-240.
- 윤희윤, “주요 국가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 주요 국가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pp.69-96.
- 이만수, “정보사회에서의 국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1호(2001), pp.201-221.
- 이상민.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의 쟁점과 과제. 국회의원 이상민과 국회도서관 공동주최세미나, 2013.11.18.
- 이상복, 이용훈, 광승진.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2008), p.11.
- 이정연.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2호(2011), pp.22-25.
- 임진희. “국회의 통합 라키비움을 기대하며.” 국회도서관보, 제49권, 제8호(2012), pp18-21.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서울 : 대통령인수위원회, 2013.
- 조윤선. 문화가 답이다. 서울 : 시공사, 2011.
- 조윤희.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2호(2008), pp.5-21.
- 조정진. “서울G20국회의장회의기념 사진전 12일 개막.” 세계일보, 2011. 5. 20.
- 조중혁. 인터넷 진화와 뇌의 종말: 디지털의 미래, 디스토피아인가 유토피아인가. 서울 : 에이콘, 2013.
- 최영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12.
- 최재희,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권, 제2호(2008), pp.61-74.
- 한성택, “국가 통합 도서관 협력 체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 pp.19-49.
- Aspray, William and Barbara M. Hayers. *Everyday Information: the Eevolution of Information Seeking in America*. New York : MIT Press, 2011.
- Case, Donald O.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London : Emerald, 2002.

- Drucker, Peter F. *대변화시대의 경영*. 이재규 역. 서울 : 청림출판, 2013.
- Europeana homepage <<http://www.europeana.eu/>> [cited 2013. 11. 15].
- Fisher, Karen E. and Sanda Erdelez, Mekechnie E. F. Lynne. *Theories of Information Behavior*. New York : ASIST, 2005.
- Hess, Charlotte and Elinor Ostrom. 지식의 공유,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나누다. 김민주, 송희령 역. 서울 : 타임북스, 2010.
- IFLA Law Libraries Section homepage <<http://www.ifla.org/law-libraries/standing-committee>> [cited 2013. 11. 19].
- IFLA main homepage <<http://www.ifla.org/strategic-plan>> [cited 2013. 11. 18].
-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Memory Project homepage <<http://memory.loc.gov/ammem/award/collections.html>> [cited 2013. 10. 30].
- Lor, Peter Johan.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1997. UNESCO. <http://www.unesco.org/webworld/nominations/guidelines1_h.htm> [cited 2013. 11. 19].
- Marsella, Marco, "Europeana, Innovation, and Cultural Content Online: where do we stan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EuropeanaTech Conference, EuropeanaConnect*. 2011. <<http://www.europeanaconnect.eu/europeanatech/index.php?section=programme&page=programme>> [cited 2013. 11. 10].
- Murray, Stuart A.P. *도서관의 역사: 문명의 기록과 인간의 역사*. 윤영애 역. 서울 : 예경, 2012.
- Ranganathan, S. R.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2nd ed. Bombay : Asia publishing house, 1957.
- Robin Pogrebin, "New York Public Library Shifts Plan for 5th Ave. Building," *The New York Times*, Sep.19, 2012.
- Roszak, Theodore. *정보의 승배*. 정주현, 정연식 공역. 서울 : 현대미학사, 1994.
- Rothstein, Pauline and Diantha Dow Schull. *Boomers and Beyond*. New York : ALA, 201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Young Sil and Hae Young Rieh. *Research on Larchiveum Spatial Planning : based on Functional Convers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Thesis(Ph.D.),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2012.
- Man-Soo Lee, "A Study on the Library Policy of National in Information Society." *Journal*

-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Vol.32, No.1(2001), pp.201-221.
- Hee-Yoon Yoon, "Analysis on Systematization and Gap of Subject-based National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Vol.40, No.3(2009), pp.69-96.
- Hee-Yoon Yoon, "A Study on the National Library Service Policy for the Disabled Persons in Developed Countries: Focusing on the U.S.A., the U.K., and Japan."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Vol.38, No.4(2007), pp.215-240.
- Jo, Juong Hyuk, *Revolution of Internet and Destruction of Brain: Future of Digital, Dystopia or Utopia*, Seoul : Eikon, 2013.
- Jo, Yun Seon, *Culture is the Final Solution*, Seoul : Sigongsa, 2011.
- Kim, Jung. *Ideas of New Design Policy*. Seoul : HongDesign, 2011.
- Kim, Se Hun. *The Influence of State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Sphere : the Case of Korean Public Libraries*. Thesis(Ph.D.), Dep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3.
- Kim, Yong W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4.
- Lee, Jung Yeoun.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Library Policy for the Information Alienated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2, No.2(2011), pp.22-25.
- Lee, Sang Bok and Yong Hun Lee and Seung Jin Kwak.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Nation-Wide Library Cooperative System Mode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9, No.1(2008), p.11.
- Lim, Jin Hui. "Expecting Combined Larchivium of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Vol.47, No.8(2012), pp.18-21.
- Man-Soo Lee, "A Study on the Library Policy of National in Information Society,"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Vol.32, No.1(2001), pp.201-221.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IA. Realizing Digital Creative Society through Creative Uses of ICT, National Informatization Future Strategy Seminar, 2013. 8. 22.
- National Assembly Library. *Sixty year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2012.
- National Assembly Library. *2012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Seoul : National Assembly Library, 2013.

- Sung-Taek Ha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ion-wide Library Cooperative System Model,"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Vol.35, No.1(2004), pp.19-49.
- Park, Mi Hyang. "Expecting the Coexisting Cooperation of Reducing Digital Divide." *National Assembly Review*, 2013. 7, pp.76-77.
- The Steer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2014 Review Report of the Budget on National Assembly*. Seoul : National Assembly, 2013.
- University Industry Foundation of Yonsei University. *The Study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Information Sharing Policy and Development Plan*. Seoul : National Assembly Library, 2013.

